



전복한정부 문화선전성

차관 정상진 선생.

정상진 선생은 1918년 5월 5일에 원릉(원강) 연태군 블라지보스도크에서 탄생하시었다.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문화 중심지이며, 원릉(원강)에서 공업, 산업 문화 중심지인 고령(고령)도시에인 블라지보스도에는 한 인 노학, 노중 및 고공까지 있는 관계를 정상진 선생은 고령 도시에서 1936년에 고공까지 졸업하시어 그 해에 원릉에 유입한 한인 사대 아들들에게 입학하였다. 정상진 선생은 공학교 학창시절에 아주 열성적으로 고령 각종 사회 단체들의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다. 그의 사회 단체 들에서의 사업은 단지 그 학교내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원릉(원강) 범위에서 전 은 한인 학생 공동체에 광범히 알려져 있었다. 정상진 선생은 매년 원릉(원강) 범위에서 조직 관행되는 소년단 "스콜트" (소년단 대회) 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그의 강력한 조직 리해를 보였으며,

대년 동기방학이면 흔하히 자기 학교 학생들의 힘으로
 각종 연극 예술극단과 각종 체육단 등을 조직하여 가지고
 각군, 읍들에 있는 궁벽한 농촌들에 새로운 문화적 위풍을
 보급할 목적으로 문화공연 체육연회 등으로 조직하면서 아꺾
 관자고 있던 한민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화하였다. 그 당시에
 불타지보소도크 소년단 대회에 참가하시었던 남녀 여학생들을
 과 또 그 당시에 함바롭스크시나 우부리스크 시에 살고 있던
 여학생들은 현재까지도 그 당시 느끼진 감상들에 대
 하여 인상 깊게 이야기 하곤 한다. 정상진 선생은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함으로써 누구든지 한번 그와 대면한분은
 전부다 그분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때문에 항상
 정상진에게는 아귀가 가까운 친구들이 많다.

정상진 선생은 원동변강 불타지보소도크에서 엄청난
 사범대학 어문학부를 1940년에 가사르 공화국 크를로로
 다시에서 졸업하였다. 이것은 한인에 대한 강제어족정책
 때문에 한민사범대학이 크를로로다에 이동하였기 때문이
 었다. 사대를 졸업한후 정상진은 공화국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데로 드살라가스시 고등 어문학교장으로 일하였다. 대학원
 한후 일년을 일하자 보베르 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
 작되었다. 원태 항구도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학
 생사절을 불타지보소도크 항구에서 지낸 정상진 선생은
 자나 개나 항상 밝게 바라본 해군도, 그들은 보르다
 키라 큰적하고 눈^이개 생긴 몸이 뚱뚱은 하지 검은 해군
 복은 (~~정상진이 항상~~) " 나도 한번 해병대에 복무 하면서 저런
 복장이나 입어^는 일" 하는 것은 항상 정상진의 공상이었었어
 다 그러나 한민들은 조국전쟁의 위급한 시기에도 군대 복무
 에 소빙하려 않은것이 큰 화거되었다. 그래서 정상

생은 수석 사담위원회 시군사등원부에 조국전선에 자원
하여 나가겠다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그렇게 끝내차 마침내 1945년 3월에 정상진 선생
은 노병직에 그의 모국대를 대령양 소군 해병중심지인 불
라리보노도크 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전배가 다 끊어진
뒤에 남의에 군복을 처음 입은 정선생은, 초시기 군대복무가
아주 바빴다. 물론 정선생이 강제수행한 업무는 전사 업무가
아니었다. 군원은 군원답게 상량에게 물어볼 줄 알고, 대담할
줄 알아야 하니까, 상량에게 접근할 줄 알고, 정례 들릴 줄 알^고고,
돌아서 도록 나갈 줄 알아야 한다. 또 군원은 군원답게 걸을 줄 알^고고,
앉거나 서서 규정대로 정례 들^고고 할 줄 알^고고, 또 정례 받든 줄 알^고고
해야 하는 법이다. 이 모든 것 다 더불어 즉 대담 규정과 더불어
내부 규정, 전후 규정, 등을 연구하니까, 사격장에 사격하러도,
또 정치상황에도 다녀야 하였다. 어떻게 분주하고 복잡
한 환경에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5월 9일에 독노전
쟁은 끝나고 8월 8일이 도착했다. 독노 전쟁에서
용리한 소련은 연합국의 의무대로 일본 제국에 전쟁은
선포하였던 것이다. 정상진 선생은 8월 1일 저녁에 불라지
보노도크 해군기지에서 명령을 받고 크나란 군함에 올라 탄후
대령양쪽으로 나가 (일동)에로 남쪽을 향하여 청진항 바
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로 아침 5시경에 상륙
점에 가라하고 다른 수백은 어뢰정, 수뢰정, 들은다라 바르
청진항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선생이 상륙점이 청진항 북부
에 도착하기 전 에 벌써 어뢰정과 수뢰정은 청진항구에
들어가 몇개의 군함으로 폭파하면서 앞편 독한으로 폭파시켜
수백에 연막을 쳐놓았으며, 항공대는 부두 유역에 우수히
서고 모든 상공도를 포격하여 청진시도 청진 개벽하듯 높은

뢰성라 같이 활자를 진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 쪽에서 4. 사격하는 함포소리와 함께 공중 포격소리와 동시에 연기, 분사음 충전 전 시내를 덮어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순간을 리용하여 정선생이 한 상륙점은 어느덧 충전 부대가 도착하고

871명의 해군 육전대는 지휘관 중좌를 비롯하여 (한편의 전후 대서를 갖고) 충전 부대에 올라서 전후 서열로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전진하였다. 해병들의 기본 전후 업무는

군함에서 상륙점에 가라타기 직전에 발발하와 같이; 충전 시내를 횡단하고 충전시 뒷산에 올라가 삼림속에 전지를 형성하고 적의 항공기를 제압하며, 최후 야군의 후

측산 부대의 발발음을 방조하여 할개의 군부대의 실력으로 조성함각은 만주 쪽으로 북서 공격하며 나오는 소련군 25군단 각 전함부대와 부대들이 지행할 수 있는 병력어뢰는 동시에, 적

에게 있어서도, 적후에 갇힌 부장격어뢰, 어뢰의 전후에 있어서도 치명적 타격이며 패망의 전제조건이었다. 정선생 선생은 충전상륙점에 대하여 자기 동지들에게

누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상륙점에 오르기 직전에 부대장은 전체 구부대를 정렬하여 놓고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의 기본 임무는 충전시내에서 적의 어떠한 병력이 저항하더라도, 또 자기 역량이 얼마나 잃어버린

간에, 동지들 - 87 여영공, 401명이 남는, 201명이 남는, 단 101명이 남더라도 충전 뒷산점에 올라, 거기에서 자리잡고 발발이든 것이요. 전후로써 전진하는 과정에 물론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말고 계속 급한속도로 전진해야 하고, 희생자들은 최후 뒤따르는 위생부대가 처리할 것이요. 특별히 주의 식히던 것은 부대 총역원 정유리 ~~중위~~ ^{중위}의 생령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시오. 적후에서 지방 인적 동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시간이라도 전디기 바쁘니, 즉시 목숨이나
 한가질 것 이외"라 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정선생의 등골에서
 는 땀이 주르르 나왔다. 다음 상옥한다음 해병들의 권속서열
 을 짚어 나개의 종대로 자동총 구별대가 자동총과 우류한
 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뒤를 이어 경기관총과 반전총, 반전
 총 우류한으로 주장한 때 보가는 권속로 경기관총, 42 리티
 백정도도 몇 줄이 뒤따라 갔었다. 자동총 구별대 전
 면에 적병의 조직적 집중적 저항은 별반 없었으나 4-5
 명, 6-7명 구별대의 저항과, 개별적 결사대들이 자동
 총과 우류한을 편지며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상옥병
 들이 제일 권속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시 총인원 88명 중 52명이 대열을 정고 총지휘관에게
 보고하였다. 상옥부대 지휘관 중좌중령은 어상정형을
 군함에 있는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해병들에게 다음과 같
 은 부대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총인원 52명 중
 상옥 지휘관과 정지 부지휘관 노좌에게는 레닌 훈장
 을 수여 하라, 다음 38명에게는 '적기 훈장', 그 나머지
 11명에게는 적성 훈장을 수여 하라. 노좌를 라지오로 받아
 전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정상진 선생도 적기
 훈장을 수여 받은 명예를 리나게 되었다. 이후 라남 쪽으로
 북해 조직적으로 수색에 걸쳐 적의 소 구별대들의 작기 후
 밤에 기여든 적들을 청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바다가로 북
 해 무수히 상옥하고 있을 어군 해군 육전부대들의 맹공격에
 따라 2번 좌절되곤 하였다. 정상진 일행 상옥 부대는
 오전중 수색 공격을 받던 동시에 장거리 적포사격에 일별도 눈
 코 뜰사어 없어 항어 태세를 계속 보준하고 있다가 오후 2시
 경이 되자 북으로 북해 어군 육군 대연함부대들이 쳐들어
 오므로써 청진서를 방어하던 라남사단은 완전히 후방하고

침진시는 해방되었다. 침진 시인들은 소련 해방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날 정상진 선생은 침진 시인들에게로 복히 특별한 환영으로, 눈물겨운 악수로 많이 반겼다. 검은해 큰 군복을 입은 수많은 러시아 인들중에서 조선말을 전혀 잘하는 한인 한영을 발견한 침진 시인들은, 이 해방군들속에는 한인이 있다는것을 알고 정상진 선생을 시인들은 군복을 속에서 드러내 내리 하였으며, 상관과 같이 행군하는 정상진 선생은 눈물로 삼키며 눈물 젖어스나 대오에서 떨어져있지 않아 지휘관의 구령대로 걸어가면서 때로는 모자를 벗어 흔들기도 하였다.

침진시 뒤메놀이 가로 막혀있는 산정을 차지한 정상진 일행 해군 상륙대는 그날 하루동안 권속 배세를 유지한 행진에서 낯시간을 보내고 다시 침진부대, 따죽까지로 부대 창고들에게서 곡물과 타고 있는 내배를 알리면서 연기가 계속 물씩 물씩 나오는 연막을 뜨고 나가 아침에 타고 들어온 상륙정에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육해공군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침진시는 완전히 1945년 8월 9일에 해방되고 그 해방의 승리를 고취하기 위하여 육군부대들을 시내에 남기고 해군들은 다시 바다가에 나가 침진부대에 적선들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2일간 바다에 머물러 있던 다음 소련 해방대는 8월 11일에 원산항에 접근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원산항은 벌써 8월 9일 아침에 소련군 다른 해군부대들의 공격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그때문에 정상진 일행은 원산항에서든 아무런 전후도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상륙하였다. 원산 시가지는 벌써 완전히 질서가 잡히고 소련군 사령부까지 조직되어 시가지에는 소련군 순찰 부대들이 계속 돌고 있었다.

경상진 선생은 시인민회연회에 다시 드라와 영영 영점은⁸
좋은 범회에서 하게되었리 때일에 시회원장, 복회원장 배
성우, 보안부장 박성섭등 네명만 참가해야 된다고 전달하였
다. 그 당시 경상진 선생은 사령관과 시인민회원장의 총영으로
결하여 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19일 오전 11시 경에 좌파
소련 화물선 "백라호브" 호가 원산항에 북두에 언점되었다.
아래에서 많은 사람은 나라의 전설적 영영어, 노노
영영담지 생긴 사람이라고 믿어던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을 하나 하나씩 골라보면서 김일성 장군이 어느 분인가를 물어보았리.
내 품에야 알고 보니 전설에서 들던 어이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
새파란 뺨연어였다. 그 빨찌산 일행에는 좀 나르 없고 좀 의심했
게 보이다 리용화 노파르 언어고, 최용건 대위, 김백 대위도 언어것
만 그들은 다 언어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어 원두라고 하지
만 이 당시 김일성에게는 그 원두라 믿어였지만 나의 이름을 자기
에게 물어다 보니 그 보물어 물어되었어 것이다. 이것을 본받아 그의
아들 우리도 자기 본명은 내 갈리고 민민학교를 마감한 1953년에
야 정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 또 몇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는
자기가 한생한 고향도 내 갈리고 백두산 북 밑에 귀촌집을 짓고
그 집에서 자기가 한생하였다 하나 세계 원민을 잊을게 보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도 력사의 사실을 외곡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것도 주체 철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엇어나 다 제화
놓고, 사람이 기본인데, 독재자가 마음대로 지시하면 다 된다고
원정하면서 백두산 바위까지 깎아 내리고 자기 이름을 빼기
원인이 풍노할 정도 하연서 력사가 전혀 고쳐달들에^개 선사한 기본
한 산천에 가지돈을 대어, 그것도 자기 원민을 녹임의 증거물로 만들
려고 하? 없으니 원민 들을 어느 때까지나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이상의 력사적 사실을 세계 원민은 다 알고 있거만 김일이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가 생각하는 모양이지?

정성진 선생은 1945년 9월 14일에 김일성으로 명칭하
고 1946년 8월까지 월남 시연민위원에서 일하시다가 평
양에 올라와 문화예술 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철야 선생하고 같이 일하시었다. 이 당시에 정성진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중국 등 여러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작가 예술동맹 대회들에 조선작가 동맹 대표들을 언뜻
하여가지고 참가하시었다. 이 당시에 갖 조직된 문화
예술동맹의 모든 조직규범과 활동원칙들에 대한 강령들은 소
련 문화예술동맹의 규약강령대로 하였기 때 문에 정성진
의 활동 범위위는 방대하였는데 그에 따라 선생의 의신
도 높았다.

1950년 8월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노동당 중앙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정성진도 군복을 입게 되었으며 문화에
술언으로써 동맹을 해고 다국거리가 된 동맹시행부 형기흥과
북극장직에 파견하니, 정성진은 「자기는 어 직무를 수행할
수없다」 하니, 타사 추천 고문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으나 전쟁시기에, 유엔군이
총경하는바람에 다 북으로 도망친 고문 선생들을 어디
에서 만난단 말인가? 월년 동안 군대복무에 군사청소는
몰아 데워가 되었으나 고생은 세상에 한 생하여 처음으로
가혹한 고생을 하였으나 선생의 자의 생각에도 군대에
이워준 것은 하나없다고 생각하였었다. 군대복무의 명예를
감추지 못하던 과거 예술동맹사임에 대하여 회고하
던 중 1951년 말에 정성진은 연변군대에서 제2리여공
화국 문화선전성 처안의 직위에 임명되어 허정숙 선생
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상업기업소들이
파괴되고, 동출정리 수확과가 절충으로 인하여 저하되
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과 군대는 더 말할것로 없이 다국의

원조로서 살아가는 형편에서 권언원과 사병들의 다죽어간
사기를 고취시켜 삶의 길로 인도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졌다.

문화 발전성은, 일방으로는 세계각국에 공화국 연민군대가 일차
공격서 패망당하고, 전지전에 넘어갔으나 아직 영국지알고 살아있
다는것과 농업로 산업도 파괴는 되어 폐허로 화해였지만 앞으로
복구하면 수병은 다시연장 되어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해야 외국이 얼마안한 방조라도 받을수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화국리 각가지 사절단들을 조직하여 여러
형제국들에 파견하여야 되었으며, 그와 병행히 외국리 많은사
절단들을 초청하여 나라의 처참한 환경속에서도 불굴의 연민은
움직이게 있다는것을 진실을 보여야 하였다.

정선생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열성불 다하여 예술 사업은
선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음악예술단들을 조직하여 외국에 드
보내면서 그와 함께 갈아하여 각도시군에 순회 공연을 조직
하자는 취지, 저 최전방 전초들에서 밤낮 터잡고 있는 구분대
들에게 까지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방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알리 주었다.

1953년 4월말에 정권은 성립되어 공화국적으로 전
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은 그 경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전쟁 3년간
에 약조건에서 겨우 배비처낸 연민들은 그 지원력으로 전천
에서 재차리로 화한 공장을 복구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배
후에 앞어왔던 로동당 중앙 수뇌부는 권력다툼에 사람잡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범죄적 행동은 소위 사상검토란 명목하
에서 진행하였던것이다. 범죄적 악당들을 찬란한 애국적 령사
를 갖은 유구한 연민을 신임자, 불신자, 중간형 삼등급으로
분별 하여 놓고 매 일 수백 백의 간부들과 그들의 가족을 청산

후폭 취단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정상진 선생은 계속 없는 힘을 다하여 일하였으나, 사상검토 운동이 전반적 반노단계로 넘어갈 당시 - 1955년 제 1/4 분기 붙어는 소련에서 나오신 문화선전 예술일꾼들 - 정상진, 전동백, 기석복 선생들도 이 사상검토 함정에 차넘치려였다.

대상 선생님들에 대한 사상검토 제목은 ~~당~~ 당의 문화 예술 조선에 있어서의 구조주의, 관료주의, 기회주의 및 가족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라고 명명하여 놓고 조선의 실정을 타산없이 없어 소련식 기회주의 관료주의, 그에다가 허가이론 선취로한 소련가족주의, 지어는 소련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에 섞이기 좋아하는 사대주의 여 외에 정상진 선생에게는 남한에서 어복에 들어오신 위명한 작가 예술가들로 그들의 실력대로 적당적책에 응용한 것을 특별한 배호정책을 썼다는 것을 증거 하여 사상검토 회의 결정에 쓰기로는 조선로동당 책벌에서 가장 엄중한 책벌 - 등기하는 엄중정근에 형직에서 출직하여 지고양 목적으로 하급 당단위에 전근시킬것기 라고 썼다.

부상 (차관) 직위에서 출직된 정선생은 약 2개월간 무직으로 집에 앉아서다가 중앙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도서관관장이란 본래 안전하게 앉아서있는것이 깊은 과학 이론이나 연구하여, 어떤 새로운 발명을 목적으로 하고 앉을 놓고 늘을 가 취야 할것이었으나, 김일성의 사상검토에서 끝누를 다 놓치우고 위계급에서 아래급으로 내몰렸으니 안심이란 말과 연구란 말은 근사예로 묻지않았다. 정상진 선생에게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또 누구는 지난밤에 잠혀갔고 하는 활외에는 행정답고 생동한 말 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몇해전 부허 도서관장 직위는 높은직

무에서부터 떨어지려면 그 장소에 와서 몇달동안 녹을 썬기 다간
 감옥이나 유행지로 가는 경박소나 달음없었다. 정상진 선생도
 이 직장에 와서 안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어디로 내려 보내
 겠는지, 래일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 래일같이 손톱방타를
 짚고 있었다. 래일 오전 끝이나 자기방에 와 앉아서서면서
 신문장과 화보등을 두적거리며 넘겨보나 찾아보고, 점심에는
 사택에 갔다간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대고 오후에는 어누
 가 가까운 친구가 자기로양되여 일자리에서 잘못어난 사람의
 짐에가선 서로 속상한 이야기, 어느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 몰려
 가서 어떻게 고생한다는 이야기, 또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 해야 되겠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로 되풀이 하다
 간 일장소에 전화나 걸어 누가 자기를 찾아 안는지 하고
 알아본 뒤에 곧장 집에 돌아가곤 하였다.

이렇게 정상진 선생은 평양중앙 거리를 4년간이나 하여차
 만 하고 다니던것이 원제는 중앙거리를 피하여 뒤시골목으로
 누가 연락있는 사람이나 안무치지 않는가 살피면서 속으로 살은
 -살고 걸어 도서관에 가곤 하였다.

성취하고 기뻐할 일이 없을때에는 시간이 가는사어없이 바쁘게
 흐르지만, 평양이 원동선과 늘붙어 섞인 한눈으로 보였던
 공기속에서 딱 없게 되고 있는것 같기도 하였다.

정상진 선생은 결핵하기를 어린 막취속에서 좀 오래 있으면
 사상적으로 되지만 썬을것어 어바라 창자로 복패되여 존경하는
 「어버이」 폴로들의 구두발에 깰발되고 밟것어라고 생각하면서 자
 유로운 소련땅에 항명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1957년 8월에 정상진, 기석복, 정동혁, 김일, 명철봉, 박태섭,
 리춘백, 김용백 등 8명은 일체하게 소련정부에 국적을 요구
 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었다. 1957년 10월에 소련정부의

... ..
 국적에 대한 허가가 나오게 되자 이상의 8명은 평양을 출발하게 되었다. 소련으로 망명하여 들어오는 집단 중 제일 큰 - 8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련공화국의 자들이" 지방 원곡을 떠나는 것 만큼 그들은, 특별히 정상진 선생은 자기 자신의 안전성을 대단히 의심하였다. 평선생은 평양역에서 불어 안동역까지 도착하는 10시간 동안에 동반하는 짐작 후색을 최소화 당하면서 계속 걸고 있다가 중국 안동역에 건너와서야 한숨을 길게 쉬고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사실 그때 환경의 공기는 몹시-몹시 하였다.

연 8 일 동안을 걸어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평선생 일행 8명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지도원들이 맞아 주었다. 북한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들 다 당화하시는 당중앙 지도원들에게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소위 '사업 평정서'가 있었다. 그 소위 '평정서'에는 죄인들에 대하여 검찰소에 보내온 신고서처럼 써 보내였을바, 그 기록대로 한 한다면 평선생 일행 8명은 소련 당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당중앙 조직부 지도원들은 평정서를 다 읽어 주고 끝으로 하는 말이 '우리들은 현재 조선 실정을 다 잘 알고 있으니 평정서 내용에 대하여서는 안심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당중앙 지도부의 지시대로 하뉴켄트 중앙 당학교에 가서서 4년간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4년간이면 강가에 물도 많이 흘러 갈터인데 그대에 따라 환경이 변할 때면 조선에 또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상 8명은 하뉴켄트 당중앙 위원회에 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 받고 4년 동안 재교육 받는 다음 1947년에 중앙 당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정상진 선생은 코슬노르다 시에 있는 '레닌기치' 선출사 선전복장으로 5년간 일

하시고 전근 되어 타직인 공화국 두산베시 주재기자로
1985년까지 일하신 다음 알나다에 옮겨온 「트레인지」
신문사에 다시 들어가 현재까지 본설원으로 일하시고 있다.

정상진 선생은 자기 일생을 대공복에서 학창 시절부터
문화 운동 사회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여 왔다. 현재에도 기본 사
업은 고려인들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사업에 매달려서 주력
하면서 또 고려인 민족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91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 계시는 허진 선생을 모시고 이전
에 북한에서 일하시다가 당시 조선에 들어와 계시는 전북한 간
부 가족들에게 가능한 정도에서라도 돕아 주어야 된다는 절심으로
재노고려인유가족후원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1991년
3월에 허진, 정상진, 강상호, 유성철, 남병식 박영물 선생님들은
모스크바에서 유가족후원회 창립에 대한 선언서를 발표하시고
유가족 후원회 위원장 직위에 정상진 선생을 추대하시었다.
정상진은 그 후 끊임없이 유가족후원회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많은 유가족들에게 물질 양면으로 많은 방조를 주고 있다. 1993
년 3월에는 유가족들의 행방 불명된 세대주들의 행적을 해명
키위하여 그들이 명단을 작성하여 가지고 유엔 인권옹호 위원회
한국 분과 위원장을 찾아 서울에 가서서 그 명단을 제출하시
면서 끝까지 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시어, 그 후 1994년
여름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옹호 위원회 총회에
조선 고려인 유가족 위원회 명의로 참가하시어 우리
행방 불명 간부들의 행적을 속히 해명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었다.

1992년 3월에는 전북한 책임적 간부들이 비록 해외
에 나와 망명 생활은 하나 각국에 흐려져 있는 그럭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 동경에 계시는 박갑동 선



사진은 정상진 선생이 유명한 작곡가 김순남 선생 딸의 자택에서 장학봉, 박갑동 선생과 같이 1993년에 서울 방문시 촬영한 것이다.

생의 지도하에 수십명의 초임직간부들이 모스크바에 통역사
«민족통일 구국전선» 조직에 대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제1회
창립 총회는 우선 민족통일 구국전선 상임 의장으로 박갑동 선
생으로 선거하고 부의장에 이상조, 서휘 선생을 선거하였으며,
정상진 선생을 사무총장으로 선거하였다. 총회참가자들은
민족통일 구국전선은 해외에 산재하여 있는 민족 역량을 집결
조직하며, 북한외 반연변적 파쇼정책을 폭로하며, 우리의 제2
세대들에게 한하여 구국전선은 정치적 사회단체로서 그들의 행
동강령을 감싸주는 소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민족통일 구국전선» 창립된 후 정상진 선생의 활동범위는
비할바 없이 넓어졌다. 선생은 각지역에 널리 있는 구국전선
하급단체와 간부들에게 적절한 문제와 당면과업들을 해결
하여 주는 한편 적절한 조직적문제도 해결하여 주기 위하
여 소련 각지역에 돌아 다니었으며, 그 외에 정상진 선생은
구국전선 각대회들을 조직 준비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등에 갔다시피, 그 외에도 구국전선과 유
가족 후원회 문제를 서울, 캐나다, 제네바 등에 다녀
왔다. 정상진 선생은 현재 80 고령에 이르렀으나 전
강태에 원기 넘쳐서 생존하고 있으며, 사업하고 있다. 15